



내 등의 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
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제190차 이사회 소식

4월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90차 이사회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총무이사로부터 ▲제35회 정기총회 개최(02.2.2) ▲법인 정기업무보고서 제출(02.2.20)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02.3.21) ▲국고보조금 중단 통보(02.3.21)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에 관한 건의서 제출(행정자치부 02.3.25) ▲제11호 협회 소식지 발간·배포(02.4.12) 등의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이어 2건의 부의안건(2002년 사업에 관한 건, 2003년도 예산안에 관한 건) 심의에 들어갔다. 부의안건 심의를 마친 후 11시 10분에 산회하였다.

◆ 부의안건 심의내용 ◆

△ 가항 - 2002년도 사업에 관한 건.

6월 중 실시하는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사업이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이를 토의한 결과, 세미나 일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로 하고 강사선정 등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 나항 - 2003년 예산안에 관한 건

먼저 그동안 지원해 주던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통보와 이에 대한 우리 협회의 대응 경과에 대한 이사장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 김창진 감사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받아 집행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3년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으로 6,444만 7,000원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타사항 - 임재룡 이사가 그간 지방의회속기사의 일반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집행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국회 속기사 80%, 눈의 피로와 어깨통증 호소”」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 중 하나인 VDT증후군과 관련하여 국회 속기사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피로와 통증이 심한 부위로는 눈(51명, 79.7%)이 가장 많았고 어깨(50명, 78.1%), 손가락(41명, 64.1%), 손목(33명, 51.6%) 순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속기사들의 VDT증후군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통증의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35.9%인 23명이 VDT작업이 있을 때만 통증을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14%에 해당하는 9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답변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3%에 불과했다.

눈의 피로, 두통, 위장이 더부룩한 증상, 목과 어깨 그리고 팔에 오는 통증 등이 VDT증후군의 초기증

상인데 이러한 초기증상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계속되면 만성화되어 탈모현상, 시력감퇴, 소화불량, 만성피로, 감기증세, 여성의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임산부에게는 유산까지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러한 VDT증후군의 유해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9.7%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업무를 우선하고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작업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적절한 책상과 의자 높이의 조절, 발 받침대 사용, 알맞은 조명,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규칙적인 휴식과 휴식공간 필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VDT증후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몸 관리에 힘쓰는 한편, 제도적으로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의회 속기직원 연수」

국회사무처에서는 2002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속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속기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의회운영능력 제고와 의회운영 경험의 공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그리고 지방의회 간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실시한 이번 연수에는 전국 70개 의회에서 108명의 속기사들이 참여하였다. 작년 연수프로그램에 52개 의회, 81명의 속기사가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올해는 참여의회나 인원이 많이 늘어난 편이다.

이번 연수 교과목 중 "음성인식과 회의록 작성" 시간에는 음성인식기(소프트웨어-바이보이스) 시연과 함께 음성인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목, 특강, 국회시설 참관, 수료식으로 이어진 3일간의 이번 연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교과목 및 강사진

회의록 관련법규 및 사례(이경식 - 의사국 속기1과 서기관)
수문(修文)의 기본원리(홍기표 - 의사국 속기1과 속기주사)
회의록 시스템(간찬기 - 의사국 속기1과 속기주사)
의사진행실무(최민수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음성인식과 회의록 작성(김창진 - 의사국 속기1과 서기관)
특 강(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소장)
회의록 작성 및 편집실무(박정호 - 의사국 속기2과장)
의안처리실무(박수철 - 의사국 의안과장)

“부시 失言 ぜ발 그만”

백악관, 말실수 담긴 속기록 수정에 진땀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를 소개하면서 백악관은 종종 부시의 '실언록'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주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4000 시간'의 자원봉사를 '4000년의 봉사'로 잘못 발언해 청중의 폭소를 자아냈다고 전했다. 부시는 같은 날 기금모금 집회에서 조디 렐(Jodi Rell) 코네티컷 부지사를 소개하면서 "주디 켈(Judi Kell) 부지사가 이 자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주디"라고 실언,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준 셈이 됐다. 부시는 지난달 미주리에서 '사망세 폐지'(death tax repeal)를 '사망세 항구화'(death tax permanent)로 실언했다. 속기록에는 당시 실언 옆에 '*' 표시와 함께 '사망세 폐지로 읽어야 함'이라는 사족이 붙었다.

대통령의 실언은 백악관이 수정하기 때문에 공식기록에서는 야유와 웃음 등이 지워진다. 실제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언론사태와 대(對)테러 전쟁에 관해 연설하던 중 시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청중들의 돌발적인 함성과 야유, 응원이 섞여 나왔으나 백악관은 청중의 반응을 모두 지워버린 기록만 남겼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을 지워버리는 것은 옛 소련식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 록하트는 "발언록을 남기는 것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역사기록을 위한 것인데 지금부터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연합

회 원 동 정

☆감사합니다.

·이범재 회원(강원도 교육위원회)/발전기금 3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포상 · 축하합니다.

·성천영 회원(국회사무처)/국회개원 54주년 기념 퇴직자포상(02.06.30 정년퇴직 예정)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속기직원 교육(국회헌정기념관)/70개 의회에서 108명의 회원들이 참여

·오경애 회원(국회사무처)/(02.04.28~02.05.09) 단기해외연수(직원 의회제도 시찰)

☆결혼 · 축하합니다.

·염정림 회원(고양시의회)/(02.05.04)

「속기경기대회 결과보고」

지난 5월 28일(오후 6시) 국회사무처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제10회 속기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9팀(26명)이 접수하였으나 경기 당일에는 6팀(17명-수필 6명, CAS 11명)만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있어 왔던 속기경기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응시자격을 개인이 아닌 팀 별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진행방식도 달라져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회 참가자들 모두 좋은 성적을 내주었습니다. 경기대회 참가 회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상 : 부산광역시(신상오, 고명선, 이경남)

은상 : 국회사무처(주정순, 유경화, 최영림)

동상 : 국회사무처(박정현, 윤미영, 최혜련)

■ 회비납입 안내

- 회 비 : 1년분 20,000원
- 보낼곳 : 농협 온라인 036-01-087944
정 숙(협회 재정부장)
- ※ 회비납부가 1년 이상 연체될 경우 회원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고를 바랍니다

- 내 용 :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회상기, 수필,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보낼곳 : 본 협회 홍보부
(02) 788-2374